

HAPPY STORY



Hanmoory Presbyterian Church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교회

한무리 교회

담임 목사 박 상 돈 Rev. John S. Park, Pastor
(주일예배) 100 Christie Heights St., Leonia, NJ 07605
(수요예배) 62 W. Palisade Ave., Englewood, NJ 07631
(사무실) 405 E. Palisade Ave., Englewood, NJ 07631
Tel: 201-440-45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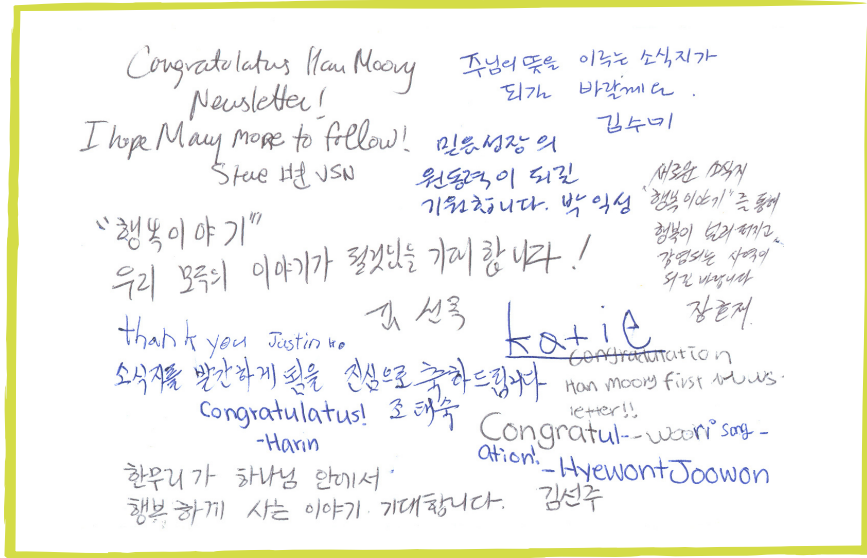
www.hanmoory.org

목 차

축하 카드
목사님 축하 인사
반갑습니다. - 새가족 소개
EM STORY - Hanmoory Church English Ministry
재미와 감동이 있었던 조셉 뮤지컬
은혜 나눔
목장 이야기 - "우리 목장은요"
한무리 이모 저모

VOL. 1 OCT. 2011

[축하 카드]



[창간 메시지]

살~름,
 한무리 교회 소식지, '행복 이야기' 창간호의 출간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난 행복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보통은 말없이 그냥 지나 갑니다. 간증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기에, 주님께 기쁨이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받은 은혜들, 살면서 기쁘고 감사했던 일들,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서 살면서 경험한, 작지만 마음이 훈훈해지는 이야기들을 "행복 이야기"에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목장 사역을 하기에 많은 성도들이 "목장 식구들 외에 다른 성도들은 잘 모릅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묻습니다.
 그 해답 중에 하나가 '행복 이야기'입니다. 각 목장의 소식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전체 행사나 각 기관들의 소식을 나누고, 소식지에 기록으로 남겨 놓으면 우리의 발자취가 되고, 귀중한 역사 자료가 될 것입니다. '행복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하며, 출간을 위해 수고하신 많은 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박목사 드림

행복 이야기 통권 1호 2011년 10월
 행복 이야기는 해외한인장로회 뉴저지노회에 소속된 한무리교회의 소식지로 일년에 4번 발행되며, 교인들간의 교제와 문서를 통한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하며 무료로 보급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소식지팀이나 hanmoorychurch@gmail.com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식지팀: 김성수, 김현, 박진수, 안미경, 유정림, 이명주, 이수정, 이지원, 조희창, 홍현진

happy story

[반갑습니다]

정명보, 김옥환

한무리 교회 모든 분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편안하게 신앙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온 시기가 목사님도 새로 오시고 지휘자도 새로 오시고 교회 사역이 새롭게 시작되는 즈음이라 저 또한 새롭게 신앙 생활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함께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정말 즐겁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찬양대원이 되길 원합니다.

김나연

이선주 사모님 인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직장 관계로 주일에 일을 해야 하기에 아침 일찍 예배드릴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를 드리고 일을 갑니다.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이 힘들어 몸은 고단해도 금요 기도회에 나아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건강이 좋아져서 신앙생활, 직장생활 잘 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동규, 손은정 (도현, 태우)

아이 친구 부모님(김민규/박선영)을 통해 교회를 소개받았고 황정혜 집사님이 가까이에서 가정 대소사에 많이 도와주시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다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신앙 생활은 처음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교회 오는 것을 좋아하고 좋은 분들 만나서 좋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목장 모임에도 잘 참석하고 있습니다.

황경숙

아들 Jeffrey가 유치부 교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저는 올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직장 일로 지금 주일 성수를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 중입니다. 목장 모임에 계속 남편과 함께 나가고 있으며 목장 모임에서 목원들과 교제하며 중보 기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훌륭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신한주 (제나, 승리)

아내(신수영)는 3년 전부터 교회 기도회 모임에 나가면서 교회 생활을 시작했었고 저는 올 여름에 처음 한무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주일에 일을 했었는데 목장에서 부인이 남편 주일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부탁을 하고 오랫동안 기도를 한 덕분에 지금은 주일에 쉬면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 와서 보니 '1인 1사역'이 있어서 가족과 함께 비전 하우스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니 가족이 함께 한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온 가족이 청소를 하면서(아직 어린 승리도 기어 다니면서 청소를 돕지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영미 (최기주, 인혁, 진혁)

전에 한무리 교회를 다녔었는데 다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경이 집사님께서 계속 연락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민석, 이보현 (성은, 성주, 성호)

지휘자로 본 교회에 오게 되었고 지휘자로 초청 받기 전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한무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제가 원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때 방문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한무리 교회에서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신앙 비전은 역시 음악의 달란트를 주셨으니 주신 것으로 최선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귀한, 아벨의 제사. 그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김혜미 (준서, 준혁)

황정혜 집사님 인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생활은 처음이지만 어색하지 않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생각보다 거리감이 없고 예배드림과 교제의 시간도 편하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한국 말하면서 친구들과 놀 수 있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 생각되어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교회 생활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좋은 관계들을 그려봅니다.

새가족 환영회, Sept. 2011



happy story



김영찬, 노홍희, 윤려자 (민서, 민지, 민영)

교회를 찾던 중 신문에서 새로 목사님이 오셨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고 또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있던 중에 우연히 길에 있는 교회 간판을 보게 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아이들 친구 가족들도 있어서 낯설지 않고 편하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 예배가 따로 있어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전엔 아이와 함께 TV로 예배를 드렸는데 제대로 예배드릴 수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지금은 예배시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많은 은혜가 됩니다. 또 '몸 찬양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재미있고 보람됩니다. 아이들도 교회를 아주 좋아해서 감사합니다.

안해진, 최윤정 (Peter, Ashley)

한무리 교회에는 처남(최환준) 소개로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 와서 개척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했는데 큰 아이가 교회에서 친구 없이 너무 외롭게 자라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고 주일학교가 잘 되어있는 교회를 찾고 있던 중 하나님 인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쉽게 잘 이해되어 은혜롭고 또 가족 같은 교회 분위기에 마음이 편합니다. 아이들도 벌써 교회학교에 적응했고 교회를 아주 좋아합니다. 또 한글학교가 있어서 신앙교육뿐 아니라 한글 교육도 시킬 수 있어 기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후원 해주신 분들

LISMA LANGUAGE SCHOOL - ESL / TOEFL
342A Commercial Ave., Palisades Park, NJ 07650
T: 201-951-1944 E: njlisma@gmail.com

인성, 진성, 감성, 실력을 겸비한 세계속의 인재양성!
RECAS ACADEMY
T: 201-944-5454 E: info@recasusa.com

[EM STORY]

Hanmoory Church English Ministry

As many may know, this past August, Han Moory Church began its own English Ministry again with Michael Yi JDSN and his wife, Olivia Yi. Michael Yi JDSN is currently a second year student at Biblical Seminary, and has been married to Olivia for approximately two years. In less than one month, Michael has shown a yearning to bring his love, commitment and passion for God to our budding group, and to encourage and strengthen our faith in Jesus Christ.

Just as God has recently delivered our Han Moory Church through many trials and tribulations, God has similarly delivered Han Moory Church English Ministry through many trials and tribulations of its own. The past few years have been a difficult time in establishing an English Ministry, partly due to the dearth of qualified English Ministry pastors. Without an English Ministry pastor for the past few months, Inpyo Hong and I have diligently conducted Bible studies and discussion groups in English, for our young English speaking Han Moory congregants,. These Han Moory English Ministry members also, in turn, require spiritual nurturing to teach our younger elementary school and pre-school students. At times it has been difficult and discouraging, with as few as four or five members attending. However, God has shown me that these English Ministry members were truly dedicated to our service, despite the challenges. This sincere worship was very personally uplifting and gratifying. I experienced first-hand that it is really not the numbers or the outward appearance that God desires; but our inner heart and spiritual commitment to follow His calling and leading. I experienced that with Him, all things are possible, and that God wishes us to live by faith, not by sight.

With the arrival of our new pastor, John Park MSN, God has brought someone who is not only passionate for God, but also sincerely passionate about planting an English Ministry group here in our Han Moory Church. Han Moory English Ministry cannot thank him enough for his commitment, constant prayer, and persistence in readily and quickly finding a dedicated English Ministry pastor, Michael Yi. I also cannot thank him personally enough for his unwavering support in establishing this English Ministry at Han Moory Church.

Furthermore, the Han Moory English Ministry and I are eternally grateful for all of the support and countless prayers from many Han Moory church congregants, regarding our English Ministry. Without all of these steadfast prayers, planting the Han Moory English Ministry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In summary, Han Moory English Ministry endeavors to reach out to our own young people, predominantly those in their early adult years and college years, and meet their spiritual and fellowship needs. The Han Moory English Ministry also endeavors to be the future members and leaders of Han Moory Church as a whole, and become a vibrant place to freely worship our God in a comfortable and meaningful environment. Han Moory English Ministry recognizes that to many, it represents a future hope of the whole Han Moory Church. Thus, the English Ministry wishes to bring spiritual revival to our church in the very near future, by bringing the love of Jesus Christ to its friends, neighbors, other members and anyone else who has ears to hear the Word of God. Lastly, it humbly remembers that its hope and salvation is in Jesus Christ, our rock, Lord and Savior, and returns all glory back to Him. Praise God and God bless our entire Han Moory Church!

Steve Byoun JSN



[재미와 감동이 있었던 조셉 뮤지컬]

아동부 이주원

내 생일 다음 날인 8월23일, 우리 한무리 교회 아동부에서 조셉 뮤지컬을 보러 갔습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많은 집사님들과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이 함께 갔습니다. 우리는 코치 버스로 다녀 왔습니다. 긴 여행이었지만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영화로 조셉을 보았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즐겁게 점심을 먹고 극장인 'Sight and Sound' 에 도착해서 우리는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티켓을 받았습니다. 화장실을 다녀 오고, 간식도 사고, 드디어 자리에 앉았을 때 진짜 흥분되었습니다. 무대도 무척 컸고, 장면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살아있는 동물들과 옛날로 돌아간 듯한 실감나는 무대장치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형들이 조셉을 팔았을 때 조셉이 너무 불쌍했고, 조셉이 형들을 용서했을 때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전도사님이랑 울었습니다. 조셉이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녁으로 햄버거와 치킨 너겟을 먹었습니다. 좋은 공연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많은 사람들이 조셉 공연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Youth Group Y.J.

Before this summer, I already knew the basics of Joseph's story. He was a man from the Bible who rose to power after spending years in jail, and lived happily ever after with his numerous brothers and other family members in the Egyptian palace. A typical fairy tale. To me, Joseph was simply a vague character in the back of my mind---someone who I just knew from growing up in Sunday School. After watching Joseph the Musical, however, the story of Joseph came alive in my mind, and thus, in my life.

He was simply your average Joe (no pun intended), but God gifted him with special talents and extraordinary intellect. Due to his father Jacob's obvious preference for Joseph, all of his brothers hated him and consequently, sold him off as a slave to an Egyptian trader. This is symbolic of Christians being persecuted and detested by the world. I have personally experienced being bullied and disliked by different people, and these scars still remain inside me today. Yet, Joseph showed me that even those who are put down by others, trampled upon, thrown into "jail" or some other equivalent low area of life for what may seem like forever---even those kinds of people are valued as precious princesses and princes of GOD, the Holy and Almighty Savior, and he will eventually raise us up in the "palace" or heaven, the highest and most utopian place of all.

Before that happens though, I must reconcile with the people who have wronged me, and clear all grudges and hatred from my heart, so that I may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NIV Matt 5:48). From kindergarten to second grade, my best "friend" always made fun of me and my sister, and always tried to make us do things against our will. Then, in third to fourth grade, I met a new girl and this supposed "BFF" constantly used me for my money, bribing me with "If you don't give me this, I'm not your friend anymore." After she moved away to a different town, I met a boy who attacked my weak points in order to attract my attention, and despite his intentions, I grew terrified of him. After he moved away, I met several different people who tried to take advantage of me for my grades and academic excellence throughout middle school. Finally, God allowed me to move to a new high school where I could meet people my age who were not associated with my past. I had almost forgotten about these instances, but after watching Joseph, I realize that my past is not something that I can sweep under a carpet forever. I need to face the memories and forgive those friends, no matter how deep the traumas may be. Every person who enters my life has been sent by my Holy Father for a reason. To welcome them in love as a fellow sister or brother in Christ, regardless of whether I personally like them or not, is true strength and victory. In fact, I have prayed many times for all of these people, and am on very good terms with most of them now. They all attend Christian churches, and God is using them for His glorification. Even to someone who is as self-reliant, hesitant, arrogant, and wounded as me, Joseph taught me the power of mutual love and forgiveness to others. Of course, I will also work on fixing myself and endeavor towards not hurting others, but rather serve them in humility. 이번 여름에 봤던 요셉 뮤지컬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성격도 고치고 다른 사람들이 저 때문에 안 아프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처 받게 만들어는 것 보다 겸손하게 섬길거예요. On the road to forgiveness and unhindered love, 용서하고 사랑을 배우는, Y. J.

God gave him a dream and came true!!
- 김민주



그림: 아동부 김민주

[은혜 나눔]

저...**교사** 됐어요!

이민정 집사 / 중고등부 교사

따르릉....

“중고등부 교사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기도해보세요.”

그 후로 중고등부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기도하면 ‘그래, 해야지!’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다가도, 나의 지금 모습을 보면 못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았다. 우선은 내가 중 고등부 교사를 할 수 있는지 정탐(?)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중고등부 예배를 들어갔다.

들어가서 불과 5초 만에 ‘아~ 괜히 들어왔다,’ ‘난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갑고 무뎡뎡한 아이들. ‘말 한번 잘못했다가 나한테 대들며 반항하면 어떡하지?’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전도사님께 못하겠다고 말씀 드리기 전에, 예의상 한번 더 중고등부 예배에 가보기로 했다. 그래도 여전히 내 마음에선 중고등부가 떠나질 않았다. 기도하면 부담감이 느껴졌다. 그러다 주일예배 때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듣고 “길”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하던 중 이사야서 35장 말씀의 “대로” 가 내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다급한 마음에 이사야서 말씀을 펴서 읽어 내려갔다. 이사야 35장 7-8절을 읽고 또 읽었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말씀을 몇 차례 읽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에게 감격의 기쁨이 밀려왔다. 나에게도 말씀을 주셨구나! 늘 나의 메마른 영혼을 채워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왔다.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주님께서서는 원천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신다. 나만을 위해 기도했을 때는 주시지 않던 말씀을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나와 우리 아이들은 주님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며 우리의 앞에 대로가 펼쳐져 있다. 이 말씀을 받고 나는 중고등부 교사를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영적인 축복과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실한 믿음으로 보여주셨다.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아이들과 함께 가고픈 마음이 간절해졌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며 열심히 뛰어야겠다.

‘교사 리바이벌’, 가슴 벅찬 은혜를 느낍니다

황경혜 집사 / 아동부 부장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은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감격이 되어 교사 직분을 감히 나같이 모자라는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의문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한 것이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구원의 감격에서 서서히 일로, 의무적으로 교사의 직분을 하고 있을 때가 더 많아진 내 모습을 보면서 ‘교사 리바이벌’이 내 안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결단했습니다.

1.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기초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어 그 마음으로 아이들 앞에 섰을 때 은혜가 되고 열매가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책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2.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늘 내 자신이 아이들에게, 또 같이 섬기는 교사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야 한다.

내 자신이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좋은 리더가 될수 없고 아이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찬양시간에 선생님들이 더 신나게 주님께 찬양하면 아이들은 저절로 기쁘게 주님께 찬양을 합니다. 내 자신이 전도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아이들과 말씀을 나눌 수 없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암송을 하면서 나 자신이 먼저 은혜 받을 때 아이들에게 더 좋은 영향 줄 수 있음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같이 섬기는 교사들에게도 함께 하는 모습으로 할 때 더 공동체가 든든해짐을 느낍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교사 기도회’가 소중함을 느꼈던 한해 이었습니다.

3. 기도하는 교사이어야 한다. 사랑하면 생각나고 그 생각이 기도로 바뀌어질 때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3. 기도하는 교사이어야 한다. 사랑하면 생각나고 그 생각이 기도로 바뀌어질 때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많이 기도하는 교사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섬겨야 할 어린 영혼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넘쳐 그 감격을 나누어 주고픈 마음이 넘칠 때 전도와 양육이 이루어짐을 봅니다.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의 첫 번째는 사랑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4. 건강한 교회는 영혼 구원의 열정이 불타는 성도와 교사가 많이될 때입니다. 얼마나 나는 간절히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늘 습관처럼, 혹은 그냥 일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책을 읽으며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의 용량을 늘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어린 생명을 귀히 여기며 섬기고자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는 그들 인생에 처음 만난 그리스도인일 수 있기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일어설수 있는 것은 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 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사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 사랑합니다. 아주 많아요.

[목장 이야기 - “우리 목장은요”]

세대는 다양, 팀웍은 환상!
복음 목장 / 김혜은 집사

우리 목장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민석 집사님은 성가대 지휘자로 사역하시고, 부인으로 이보현 집사님, 자녀로는 성은, 성주, 성효가 있다. 박정일 집사님은 축구팀 팀장으로 활약 하시고 매주 친교실에 꼬박꼬박 생수를 공급하고 계신다. 부인이신 김명순 집사님은 한글 학교에서 2세 교육을 위해 교사로 사역하시며 자녀로 혜원아와 준혁이가 있다. 김나연씨는 수개월 전에 등록하시고, 1부 예배에 참석한다. 지금은 하시는 일 관계로 목장 모임에 참석 못하시지만 모임을 사모하여 기도 부탁을 하신다. 김순희 집사님은 새 가족 팀에서 사역하시면서 매주 새 가족을 섬기고 계신다. 남편은 김선국 집사님, 자녀는 지애와 성이 있다. 그리고 목장장(필자)은 신자 교육팀에서 목장장 사역을 맡고 있으며, 가족은 남편 김재웅 집사, 자녀로는 건희, 지은, 주희, 중희가 있다.

우리 목장은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 목장 모임 때는 마치 명절에 모이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친다. 개인적으로는 각자 맡은 사역에 열정과 충성으로 임하고, 또 한데 모여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 기도제목을 품어주는 든든한 기도의 동역자들이다.

지난 성경 암송 대회에서도 각자 맡은 역할에 열심으로 임해서 단단한 팀웍을 이루어 영광스러운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복음 목장의 기도는 각 가정의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지고 각자 맡은 직분에 충성하여, 우리 교회 13개 목장과 더불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선교와 전도를 통하여 세상 이웃들에게 전하는데 늘 모아져 있다.



복음 목장 가족

happy story

평균연령 60대, 그러나 믿음에의 열정은 20대!
찬양 목장 / 박익성 안수집사

너무 자주 또는 많이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실이므로 먼저 밝힌다면, 우리 찬양 목장은 나이가 좀 지긋하다. 평균연령이 60대라 해서 왠지 모든 게 ‘슬로우(slow)’ 모션일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지속적인 변화를 요구하셨다. 거기에 걸 맞추어 우리 찬양 목원들은 계속 변화하고자 노력한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데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신대현 집사님은 지식이 풍성하시고, 삶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분이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마냥 야들야들(?)해 지신다. 목장 일을 목장장이신 듯 도맡아 하시고 교회 일에 늘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알기 전, 삶에 많은 여운도 가지고 계신다. 실이 있으면 바늘이 있다고 안영미 집사님은 신대현 집사님의 강적(?)이시다. 안영미 집사님이 계시기에 목장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의 미를 유지하고 있다. 멀리 있는 아들에 대한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엄마고, 목원들의 입맛을 충족시키고자 주저없이 떡볶이, 닭도리탕 만들기를 불사한다. 손한준, 손삼순 집사님 부부는 풍성한 정을 넉넉히 나눠 주신다. 목장모임이 있을 때마다 먹을 거리를 항상 푸짐하게 장만해주시고, 소망회 천성나들이 때 아무도 모르게 과일을 제공하셨다. 이 부부집사님의 사랑에 감사한다. 교통사고 후 후유증 치료로 병원을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한다.

치료와 건강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김송홍 집사님, 임윤옥 할머니, 그리고 손녀 딸이신 김마리(Mary) 집사님이 우리 목원이다. 김마리 집사님이 병원 일이 바쁘실 때도 임윤옥 할머니는 편치 않은 몸이라도 꼭 교회에 와야한다면, 역시 몸이 편치 않으신 김송홍 집사님을 앞장 세워 주일 성수를 하신다. 항상 신앙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김마리 집사님은 우리의 든든한 목원이다. 든든한 목장 동지로 해성 같이 나타나신 정명보 집사님, 김옥환 집사님! 요사이 김옥환 집사님은 항상 해명표정이다. 약간 샘이 나기도 해서, 우리부부는 항상 서로에게 묻는다. 남편이 저렇게도 좋을까 하고... 성가대 사역도 하고, 후보 접기도 하시면서 교회 사랑이 한참 커가고 계시다. 정명보 집사님은 이제 새벽 예배에서도 눈에 띈다. 푸짐한 사랑과 커가는 신앙, 그리고 변화하는 삶 속에 78%가 60대 이상인 7860의 찬양목장은 앞으로 계속 전진한다. 우리 부부로 하여금 이 소중한 목장을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찬양 목장 가족



[한무리 이모 저모]

고린도 전서 암송 경연대회 열려

'사랑'을 주제로 한 설교 시리즈의 일환, 1등은 복음목장이 수상

8월 14일, 전 교인을 대상으로 성구 암송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전 6주 동안 '사랑'을 주제로 한 설교 시리즈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암송 경연 대회에서 전 교인이 고린도 전서 13장을 목장 별로 암송했습니다. 목장 별로 옷을 맞춰 입거나 다양한 율동을 선보이고, 재미있는 소품을 동원하는 등 다채로운 암송 대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예의 대상인 '사랑상'은 복음목장(목장장 : 김혜은 집사)이, 2등인 '믿음상'은 실로암 목장(목장장:장경만 집사), 3등인 '소망상'은 겨자씨 목장(목장장 : 김성수 집사)과 만나 목장(목장장 : 박진수 장로)이 공동수상했고, 소망목장(목장장 : 이태호 장로)은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상을 받은 복음 목장은 김혜은 목장장의 인솔하에 수요일예배, 온가족 새벽기도, 주일예배 후에 모여 암송연습을 했다는 후문입니다. 믿음상을 받은 실로암 목장은 목장장을 제외하고 모든 목원이 여성이어서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소망회, 천성 나들이 행사 가져

비 오는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

8월 15일과 16일, 소망회에서 1박2일간 천성을 다녀왔습니다. 한무리 교회를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권사님들의 나들이에 박상돈 담임 목사님이 동행하시고, 임경안 장로님이 운전으로 봉사를 해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더했습니다.

첫날은 비가 많이 왔지만 우중에도 음식들을 나누며 '먹고 또 먹고'의 명언을 남기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격적인 천성 관광이 이루어진 둘째 날은 날씨가 개어 청명한 하늘과 아름다운 천성의 비경을 한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한무리 교회 새싹들, '요셉 뮤지컬' 관람

감동의 뮤지컬을 함께 보면서 요셉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를 소망

8월 23일, 한무리 교회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등 모두 65명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 임대한 미니 밴을 타고 랭캐스터 '요셉 뮤지컬(Joseph Musical)'을 단체 관람했습니다. 날씨도 하늘도 더없이 맑고 시원한데다 뮤지컬도 눈물바다를 이룰 만큼 은혜로웠습니다. 인솔했던 조회창 전도사는 '모든 이들이 요셉의 뮤지컬을 통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꿈과 큰 용서를 이룬 요셉의 삶을 생생하게 보고 느꼈습니다. 한무리 교회의 다음세대가 요셉처럼 소중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길 기도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성경 암송 대회 2011

